

## 지쿠시노시 '니시노미야코'에서 꽃피운 문화가 느껴지는 남쪽 땅

국가 제사와 항해 기원이 행해진 호만산과 부젠으로 이어지는 도로 옆 아시키산성이 바라보이는 덴파이산. 그 산기슭에 있는 스이타온천은 힐링과 교류의 장으로서 붐비었고 만요슈에서도 많이 읊어졌습니다. 기나이와 대륙과의 교류를 전하고 '니시노미야코'의 번영을 떠올리게 하는 사적도 많은 남쪽 마을입니다.



스기즈카하이지 유적



